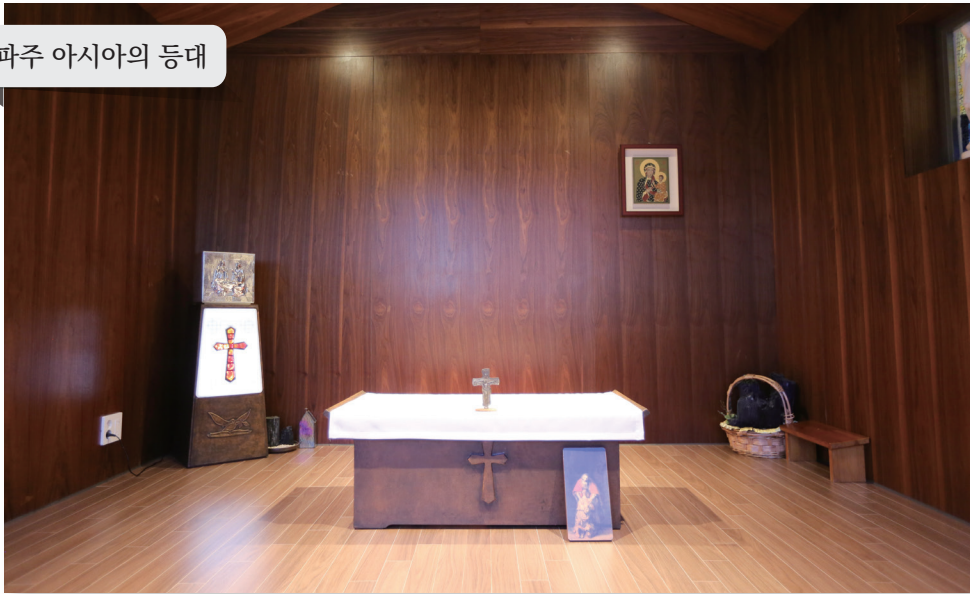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2019년 9월 22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8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파주 아시아의 등대



설립 2018년 9월 9일 전화 사무실 031-938-8105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39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ㄱ-2ㄷ-3,4-5,6(◎)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 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 순교와 축제



박건희 바오로 신부  
화정동 부주임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9월 20일을 순교자들의 대축일로 정하여 거룩한 순교자들의 순교를 기억하며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순교와 축제라는 말이 서로 맞지 않는 말 같아 보이지만 묵시록에 따르면 신앙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교자들의 대축일을 거룩하고 기쁘게 지내며 순교자적인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핵심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다짐하지요.

우리 선조들이 백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던져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라는 이름 하나로 순교를 한 것도 아니고 배교의 시기를 놓쳐 순교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순교 성인들에게도 살고 싶은 욕망이나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순교 성인들은 백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관헌이나 포졸들의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 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골

로 숨어들어서 옹기와 솥을 구우면서 살았고, 박해의 손길이 가까이 오면 이리저리 피신하는 고달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순교라는 영광의 월계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 충실한 삶,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철저한 신앙 생활이 최악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의 삶이 투철한 신앙인다운 삶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바쳐야 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고 수많은 성인들이 순교로써 우리가 신앙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용기 있게 신앙을 전하고 있으며, 얼마나 기도 안에 젖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꽃다발과 기도로써 마음을 적시며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월계관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됩시다.

덕소 성당 / 강민아 크레센시아

자본이 신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세상. 우리 청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자본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숭배하고 따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기준이 바로 자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만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몫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경쟁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다시 경쟁했습니다. 자본은 각박하고 냉정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항상 노력하라고 강요받아왔습니다.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인간, 낙오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이런 경쟁 사회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폭력과 분노, 혐오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올바른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일까. 길을 잃은 기분이 듭니다. 청년들은 나침반 없이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막막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하느님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세요. 하느님을 자신의 나침반으로 세우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께 질문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느님은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하느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오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한 존재들이기에 하느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물어뜯고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성당에 나와 미사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을지 혼자서 고민하기 어렵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됩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배우는 모임은 우리가 더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끕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때,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



## 사랑을 만들어 낼 순 없지만 받아서 전달할 순 있어요

나는 요즘 잠에 미쳐있다. 많이 자서가 아니라 못 자서다.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지자 더욱 잠에 집착하게 되었다. 밤새 몇 번을 깬고 몇 시간을 잤는지, 내일은 몇 시간을 잘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어보는 것도 가족들의 수면시간이다. '첫째랑 둘째는 약 9시간을 잤군. 뭐 그 정도면 좋아. 어디 보자, 남편은 약 6시간인데 중간에 깨서 셋째를 안고 있었으니 한 시간 빼고 총 다섯 시간. 오늘은 좀 힘들어하겠군.' 이런 식이다. 영유아가 있는 집이라면 다들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아이는 대체 몇 살이 돼야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가. 다섯 살 첫째는 그래도 빈도수가 줄었으나, 세 살 둘째, 9개월 막내는 수시로 깨곤 한다. 특히 막내의 밤잠에 대해서라면 난 몇 시간이고 성토대회를 할 수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잠귀가 지나치게 발달하여 하룻밤에도 몇 번씩 소스라치면서 깨는 아이다. 그 때문에 나와 남편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힘든 건 바로 아이 본인이라.

예전엔 아기가 왜 이렇게 잠을 길게 안 자냐고 불평했다면, 이전 인간은 왜 7,8시간을 자야하는가 불만을 품게 됐다. 서너 시간만 자도 멀쩡하면 얼마나 좋을까. 잠을 못 잔 날엔 왜 어김없이 비염이 심해지고 두통이 오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인간은 체구와 활동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많은 물자를 필요로 한다. 그 물자를 충당할 돈을 벌기 위해 또 너무 많이 일해야 한다. 세상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의 연비가 가장 형편없다. 아이들을 키우는 최근 몇 년 간 나는 비효율적인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조금만 먹고 조금만 자고도 멀쩡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여전히 쏟아지는 졸음과 싸워야 하고 배고프면 말투부터 날카로워진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형편없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닐까.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힘을 내서 움직이고, 도무지 내키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설득하는 것, 그건 이미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내가 만날 아이들 볼에 뽀뽀하고 껴안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심하는 게 아닐 테다. 제 때 밥을 차려주고 씻겨주고 수십 번 반복한 얘기도 흥미로운 척 들어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안심한다.

새벽 서너 시에 비몽사몽 몸을 일으켜 칭얼대는 막내를 달래다가, 왈각 짜증이 치솟아 그대로 아기를 내던지고 싶은 적이 있었다. 내 안에 사랑이 바닥나 있다는 신호다. 그럴 때면 무한한 사랑을 지닌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누구든,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 낼 순 없으므로. ☹️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 성경과 신앙고백

그리스도교는 나자렛 예수님, 복음과 역사가 증언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신앙고백에 기초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메시아=구세주)라는 고백에 이르고 그를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교는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거리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듣고 보는, 또는 직접적인 만남으로 마주치는 많은 유사종교 추종자들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만일 누군가 다가와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유사종교에 빠진 이들은 '우리 신앙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회장, 목사, 선생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 이들, 흔히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화신이라고도 하고, 성경이 말한 '오실 분'이라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가 현 세상에 나타난 구원자라는 것을 주장하려 그런 말을 늘어놓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메시아=구원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기에 그들의 종교 예식에서, 많은 경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고백 -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교리)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하느님의 자기 계시'(당신이 누구신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는 성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활동, 곧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에 대한 앎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교리이며 신학이다. 곧 교리와 신학의 출발점은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유사종교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지도자(교주)의 체험과 삶에서 나온 것, 곧 (인간) 교주에게서 나온 것을 성경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성경에 있다는 식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 책에서, 강단에서, TV나 영화에서, 스님의 설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자렛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다.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그 길은 성경, 특히 복음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상상의 주님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구체적인 주님께 대한 신앙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 ☉



## 용현동의 여름 캠프

안녕하세요! 3지구 용현동성당 청소년부 주일학교입니다.

저희는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5)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3일의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두사도 올림픽,물놀이,포스트게임,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열두사도 올림픽은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가장 신나게 함께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함께 하는 다양한 시간 속에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친구들, 선생님들과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고도 긴~ 2박3일 일정을 모두가 안전하고 재미있게 보내며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캠프에 참가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 하일리겐슈타트에서 (3)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1802년 10월 10일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나는 그대에 게, 슬프게도, 작별을 고하니, 아, 내가 이곳에 간직하고 온 사랑스런 희망은, 비록 어느 순간까지는 나를 치유해 주었던, 이제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간게 분명하다네. 가을날 나뭇잎이 떨어져 버리듯 말이지.”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음악학자 안 카이에르스의 다음과 같은 해설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떨어져 시들어버린 ‘가을의 나뭇잎’과 자살 충동은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따온 것 같다. 이 문학적 모티브는 죽음을 휘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삶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자기 안에 모순과 대비를 담고 있다. 베토벤의 편지는 수사학의 걸작이며, 치유 기능이 내재된 자기 독백이다. 꼼꼼하고 신중한 스타일과 서체로 베토벤은 자신의 예술적 사명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장엄한 고백의 글을 쓴 것이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는 우리가 언뜻 떠올리듯이 절망에 차 세상에 영원한 안녕을 고하는 글이 아니라 환상과 자기 연민을 넘어서되,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치유와 의미 발견의 길을 등정하는 영혼의 증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쉽사리 완성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로부터 거의 8년이 지난 1810년 5월에 베토벤이 옛 친구인 프란츠 베클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내적 치유와 의미있는 삶에 대한 확신을 향한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2년동안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사교계에 발길을 들었네. 지금까지 이로온 결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괜한 일을 했다 실근. 하지만 주위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누군들 피할 수 있겠나? 나는 행복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인간이었을 거네. 악마가 내 귀에 들어왔지만 앓았다면 말아야. 좋은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는 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이 땅을 떠났을 거야. 그것도 내 손으로 목숨을 끊었겠지. 오, 삶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내 삶은 영원토록 독으로 오염되었네.” ( 루이스 록우드 <베토벤 심포니> (장호연 옮김, 바다출판사,2019) 에서 재인용)

이러한 회복의 과정은 베토벤에게는 어쩌면 평생에 걸친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길을 그가 걸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을 잘 알려주는 음악이 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평화스러우면서도 소박한 정서를 담은 6번 <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 루이스 록우드는 다음과 같이 이 음악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연을 거니는 경험을 표제적으로 묘사하는 음악만이 아니라 베토벤이 자연을 통해 치유하는 경험을 담은 작품, 그의 “꿈의 시간”같은 것이기도 하다고 이해한다. 작품의 바탕에는 그와 같은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은 자연에서 좋은 것은 모두 신의 현현이라는 그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

악장은 마침내 긴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결국에는 피아니시모 C 장조로 접어들어 폭풍이 물러났음을 나타낸다. 코랄풍의 하강하는 선율은 청자에게 이런 찬양에 강력한 색채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베토벤이 이 악절의 스케치에 “신이여, 감사합니다. Herr, wir danken dir.”라고 적은 의미이기도 하다.” 베토벤은 이 음악을 하일리겐슈타트를 비롯한 작은 마을들의 소박한 자연을 산책하면서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 절망이라는 것이 사실 작은 일들이 쌓여 삶에 균열을 내는 데서 비롯하듯이 그 치유 역시 인내로이 소박한 일상과 자연과의 만남에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햇빛처럼 일상과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어느 순간 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깨어날 때, 여전히 희망의 길은 멀다 하여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시대의 거장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커의 연주로 <전원> 교향곡을 들으며 치유된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

YOUTUBE로 보기



베토벤 <전원>교향곡

연주: 빈 필하모니커

지휘: 크리스티안 틸레만







## 미사 · 피정 ▶▶

### 의정부교구 제 6지구 성령 하루피정

일시: 9/23(월) 09:30~16:30  
 장소: 중산 성당 대성전  
 주제: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강사: 김대우 모세 신부(수원가톨릭대학 교수)  
 두현자 율리아나(의정부교구 회장)  
 미사: 서근수 비오 신부(6지구장)  
 문의: 010-7239-0428.

###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9/25(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강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 (전화, 문자 가능)

### 교구 철야기도회 은사를 통한 치유피정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9/27)  
 주제: 제4주 예언의 은사  
 강사: 두현자 율리아나(교구회장)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 배움터 영성교육

분노의 여파와 치러: 10/1~29 매주(화) 10시~15시  
 율기 성경 탐구: 10/28~12/9 매주(월)14시~16:30  
 자녀교육 1일 특강: 10/21(월) 10시~13시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영적특별교육: 11/4~12/9매주(월) 13:30~16:30  
 장소: 성심수녀회 강일실(서울 원호로)  
 신청및문의: 031-946-2337/8

### 야곱 전국 성지순례 02-755-3009

대전교구: 9/27~9/28, 10/11~10/12  
 베트남카오성지순례: 12/14~12/18

### 제8기 김중수 주교의 2박3일 말씀피정

주제: 왕정시기와 유배<후기에언서>  
 일정: 10/18(금)~20(주일) 시작16시, 마침14시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회비: 15만 원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 백석 농아선교회 수어 미사

일시: 주일 10시(넷째주 주일은 16시)  
 장소: 일산 백석동 성당  
 문의: 문 루시아 010-2432-1627

### 성모자현 애덕의 도미니코 수녀회 별빛 모임

일시: 매월 첫째주 (토)14시~17시 /45세 이하 미혼여성 /장소: 부천 도미니코 수녀원  
 문의: 032-684-1275 /010-7339-6472

###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10/4(금)~6(일) 2박3일 /회비 없음  
 장소: 성 빈센트 환경마을  
 문의: 010-9318-1366  
 한국 틴 스타와 함께 합니다.

### 최봉도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피정 2박3일

일시: 10/18~20(금,토,일)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장소: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피정비있음)  
 (지하철 2.6호선 7번출구) 선착순 80명  
 문의: 010-6254-0057 전 크리스티나

###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대상: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  
 ※월례 미사

일시: 매월 세번째(토) 10:30, 10/19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1층 소성당  
 ※단기모임 (8회)

일시: 10/16(수)부터 8주간, (수)19시  
 장소: 명동 전진상 교육관  
 참가비: 무료(10명 모집, 9/30까지 신청)  
 문의: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02-727-2496

###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무엇을 찾느냐? ..... 와서 보아라.(요한 1,38-39) /안정호 신부  
 일시/장소: 9/27(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무료, 미사봉헌

###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일시: 10/2 첫(수) 9:30~16:30  
 장소: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사제, 이현주 회장, 접수 없음, 회비 없음, 김밥 판매(2,000원), 미사 준비, 개인컵 준비(현장판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문의: 010-2367-2297, 010-5674-8511  
 대표전화 02-777-1773

### 예수의성모 관상수도회 영성미사 및 영성강의

영성미사: 미사 및 강의-문화영 신부  
 일시,장소: 매월 4째주(토) 6/22,13시(고해성사) 14시(미사 및 성시간/명동가톨릭회관 7층/가톨릭신자) 문의: 032-933-7237, 4825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양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반: 10/17~19, 10/27~29, 11/11~13  
 제주전체성지순례(추차도포함): 9/30~10/3, 10/6~9, 11/3~6  
 접수: 02-773-1463, 064-756-6009

### 일상 영신 수련 개별 동반

대상: 청년, 연중수시, 010-5906-8099

### 마리아니스트 센터 미사안내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토) 11시 (10/5)  
 후원회 미사: 매월 4째주(월) 11시 (9/23)  
 위령 미사: 매월 마지막(금) 15시 (9/27)  
 고양시 토당동 문의: 031-926-3090

### 엄마와 딸이 함께 하는 피정

일시: 10/19(토) 15시~10/20(일) 15시  
 대상: 엄마와 딸  
 장소: 서울 메리워드교육관 010-7236-4627

### 무료 성령 통독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화) 9/24, 11시~16시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덕양구 호수로 76-17)  
 문의: 031-926-3090, 010-5267-1380



## 교육 · 모집 ▶▶

### 복음화학교 개강 37기(2019년 하반기)

마두동 성당 9/23(월) 20시(오후반)마감  
 호평동 성당 9/24(화) 11시(오전반)  
 마석 성당 9/25(수) 11시(오전반)  
 문의: 010-5535-5791 오경은 루치아

### 백석 농아선교회 32기 수화 기초반 개강

일시: 10/7~12/31, 매주 월, 수 19:30~21시  
 장소: 일산 백석동 성당 /수강료: 4만 원(교재비 별도) 문의: 문 루시아 010-2432-1627  
 의정부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대학생, 일반인  
 장소: 의정부성모병원內 동행안내 무인수납외  
 문의: 031-820-3473(장피데스·M수녀)

### 관상기도 배우기(제21차) 선착순 30명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문의: 031-974-1728  
 일시: 10/8(화) 14시~16시(6주간)  
 장소: 행주 성당 (회비무료)

### 2020 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석사과정(5학기)오르간, 작곡(CCM작곡 포함), 합창지휘/ 콘서바토리과정(4학기) 오르간, 작곡, 합창지휘, CCM, 피아노, 성악, 관현악 원서접수: 10/14(월)~10/25(금) 9시~18시  
 입학전형일: 11/15(금)  
 장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충정로역,서울역하차) /문의: 02-393-2213~5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 젊은이 모임 (생활교리.성독)

일시: 10/5~11/23 매주(토) 15시~18시(8주)  
 대상: 40세이하(미혼남.여)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서울본원(미아리)  
 문의: 010-9816-0072, 회비: 4만 원

###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안내

성시간: 매월 마지막주(수) 13:30~16:30  
 청년신앙피정: 매월 첫(토) 11시~18시  
 명사초청특강: 9월~12월  
 2020~21 영성코스 II 사전안내: 16곡목 16시간  
 카톨릭플러스친구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친구추가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 2020 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1/5(화)~11/14(목)  
 모집전공: 현대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용  
 합조형, 이콘,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헬  
 스케어환경디자인, 스마트콘텐츠, 간호학  
 입학문의: 032-830-7015

## 서울대교구 내 전시관 안내봉사자 모집

활동기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합정동),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명동),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중림동)

활동: 성지 안내봉사 /기간: ~9/30(월)까지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교우

교육기간: 10/5(토)~10/27(주일) 매 주말4  
 주간 진행 /신청방법: 네이버 폼 신청  
<http://naver.me/5rhdiFP>  
 문의: 02-3142-4504 절두산순교성지

## 2020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산하의 기숙형 여자  
 고등학교인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가정환  
 경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  
 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과  
 함께 미술심화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  
 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입니다.

모집인원: 여학생 13명  
 원서접수: 10/7(월)~10/23(수) 문의: 070-  
 8891-3831(교무실), 031-832-9988(행정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http://www.flowerdaymorning.com)

## 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특강

10/8(화) 성경 안에서(이우진 오셉 신부)  
 10/9(수) 가톨릭신자의 윤리 안에서(황창희  
 알베르토 신부) 10/10(목) 영성과 심리 안에  
 서(유성모 오셉 신부)  
 10/11(금) 생활 안에서(조명연 마태오 신부)  
 문의/접수: 032-933-1528 영성센터

##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문미노인요양원)

## 학부모를 위한 살레시오 원데이클래스

강좌내용: 심리, 인문, 독서, 소통, 예방, 중  
 독, 진로 등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http://www.salesioedu.org/>  
 문의: 02-844-0388, 참가비: 1강좌 5천 원

##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0/7(월)~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쿠아소오르간아카데미

## 시스띠나음악원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주1회)

## 서강대 외국어교육원 이태리어, 스페인어 배우기(11월)

2019년 가을II학기 모집 (11~12월 진행)  
 개강: 11/4(8주 과정, 30시간)  
 문의: 02-705-8081 <http://flec.sogang.ac.kr>  
 이탈리아어: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  
 왕초보, 초급, 중급, 고급, 독해, 회화반  
 스페인어: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여행, 순례  
 스페인어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여행, 성  
 지순례, 취미, 자격증 및 유학 준비생 대상  
 경의선 '서강대역' 앞  
 수도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모집

분야: 사무직(3명)-사무 일반  
 전산직(1명)-하드웨어 및 Network 관련,  
 Web 프로그램 개발 경험자 /제출 서류: 주  
 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마감: 11/15(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mailto:mano@cbck.kr)

## 안내 · 기타 ▶▶

###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개인심리,가족갈등

전화상담전용: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대면상담문의: 02-990-9360, 예약후 상담진행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업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http://www.holyfcac.or.kr)

### 2019, 2020 가톨릭대학교 예수성심성당 혼인예식

웨딩 상담 문의 : 아라마크 010-3362-5401

###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10/31(목) 이스라엘 9일 375만 원  
 11/4(월)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5일 125만 원  
 11/4(월) 성모발현지 4개국 13일 368만 원  
 11/11(월) 이탈리아 중·남부 10일 405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http://www.cpbctour.co.kr)

## 제6회 서울가톨릭국제미술대전

주제: 품다 /주최: 서울대교구  
 작품이미지 접수: 10/1~31  
 주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문의: 02-3142-4504 /접수: [www.sciac.net](http://www.sciac.net)

## 예수회 랑데부연수

주제: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일정: 10/19(토)~20(일)(1박2일)  
 대상: 청년누구나(선착순30명)  
 장소: 예수회센터  
 참가비: 8만원(대학생6만 원)  
 문의: 예수회 청년센터 02-3276-7706

## 가톨릭여행사 010-5235-3533

10/28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4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2일 625만 원  
 11/5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0/12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원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원

## 라파엘여행사 022-778-8565

10/4, 11/4, 11/12 이스라엘, 요르단10일289만 원  
 10/7, 11/7 이태리일주9일 279만 원  
 10/7 산티아고 13일 395만 원  
 10/14, 11/15 다낭 성모발현지 5일 129만 원

##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필리핀 세부 성지순례

아기예수님 축제 참석(Sinulog)  
 일시: 내년 1/15~21,(5박7일)  
 금액: 140만 원, 30명 선착순  
 문의: 031)834-1262

## 캄보디아 성지순례/ 문의 02-755-3009

성모님 인양장소 및 성당, 예수회방문  
 출발일: 11/11~11/16(oz)  
 지도: 홍성남 마태오 신부

##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타키,그리스) 12일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살레시오회	9/28(토)~29(일)	서울 신길동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010-5159-3949
	예수고난회	10/5 18시~10/6 11시	서울 돈암동 수도원	010-6804-4904
	성 베네딕도회	매월 둘째 주 (토)15시~(주일)13시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본원	010-8353-2323



##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태 16,19)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Annunt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Eminentissimum ac reverendissimum Dominum, Dominum Giorgium Marium, Sanctae Romanae Ecclesiae Cardinalem Bergolium, Qui sibi nomen imposuit Franciscum”

“여러분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는 새 교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탁월하시고 공경하올, 거룩한 로마교회의 베르골리오 추기경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프란치스코로 명명하셨습니다.”

콘클라베(Conclave)를 통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 추기경단의 대표는 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 나와서 새 교황의 선출을 기다린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위와 같은 말로 교황 선출 소식을 알립니다.

가톨릭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모님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교황직(敎皇職)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를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호칭 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 있겠지만, 교황님을 가톨릭 교회의 통치자(統治者)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분”(가톨릭교회교리서 882항)이라고 가르치고 있

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로서의 교황님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즉, 교황직의 권위는 ‘높은 사람’으로서 존경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봉사와 헌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無謬性)을 지닙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91항)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은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키고 있는 교황님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강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복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주시기를 청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출 후 첫인사 중에) ☺